

대구광역시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휴유대비긴급상황점검



안동성창여자고등학교 체육관 벽체 파손 현장



집중 호우가 쏟아진 경북 안동시 임동면 대곡리에서 8일 119구조대가 고립된 주민들을 구조하고 있다.

민선 8기 후반 시작 동시터진水魔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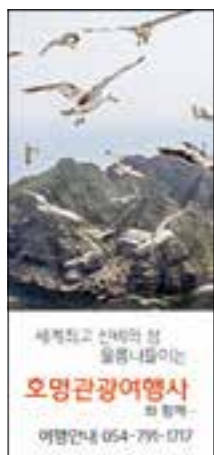
경북북부지역 160mm 물폭탄
홍수 경보·주민 완전 고립...
물폭탄 도로 옛가락 처럼
휘어지고 주택 무너지고
농경지 침수 모두 부서졌다

민선8기 후반기 시작과 함께 수마(水魔)가 활꺾고 간 자리에는 너무 참혹하다.
경북 북부지역은 '160mm 물폭탄' 을 맞았다. 전쟁터다.
물폭탄으로 도로가 옛가락 처럼 휘어지고, 주택이 무너지고, 농경지가 침수된 등 산산히 부서졌다.
삶의 터전도 빼앗겼다. 임시대피소도 마련됐다. 당장 구호품이 절실하다.
경북도의 피해 지역 지지체는 대책회의를 열고 수해민들에게 식수 등 생필품 보급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선 공무원들은 수해 현장에 투입됐다.

김성용 기자
관련기사(3면)



집중 호우가 쏟아진 경북 안동시 임동면 대곡리에서 8일 119구조대가 고립된 주민을 수레를 이용해 구조하고 있다.



오명관광역행사

단체장 일정



오도창 영양군수는 9일 오후 영양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선비유관광 권역 관광개발 기본구상 및 계획수립 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9일 오전 청송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리는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한마음 큰잔치'에 참석한다.



안동길원여자고등학교 침수 현장



안동 성창여자고등학교 토사 발생

2024 대구광역시 2024년 7월 9일 화요일(火) | 제5432호

군민을 위하는 군위군의회

제9대 군위군의회 개원2주년
초심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통하는 바른의정”
군위군의회



복구청장,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현장 점검

복구청은 8일 여름철 풍수해로 인한 자연재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팔거전 일대와 도로 침수 사고를 막기 위한 자동차단시설 설치 사업 현장을 방문 점검했다. 이날 팔거전의 진출입로와 지난 2

월 1억 4천만원의 사업비로 신규 설치한 곳을 포함하여 재난-경보시설 전반에 대한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위험징후 발견 시 신속적으로 하천변 산책로 차단 등 지시했다. 또한 금호강 범람으로 침수

가 잦은 팔달교 하부도로의 자동차단시설 설치현장을 방문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교통 통제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주문했다.

배광식 복구청장은 "여름철 비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출입을 삼가고 기상 상황 발표에 귀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흥 시장 “TK 행정통합 특별법 합의안 도출에 총력!”

대구 제2국가산단 조성 박차 TK신공항이 제대로 건설 최선

홍준표 대구시장은 8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대구시가 신속히 마련한 행정통합 특별법안 조안에 대해 경북도에서 찬반 여부, 추가 논의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구경북의 합의안에 대해 정부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대구와 경북의 합의안 도출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경북도와의 협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정부는 행정통합의 직·간접 비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만큼, 직접 비용뿐만 아니라 산하기관 이전, 리모델링 비용 등 간접 비용까지도 정확히 추계하여 정부에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쿠퍼 축제 열리는데 작년과 마찬가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해 집회제한구역에서 도로점용허가도 안 받고 무분별하게 집회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대구지법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 결과를 지켜보면서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고 주문했다.

경제국의 ‘제2국가산단 조성사업 추진’ 보고 후, “제2국가산단에 산업시설용지 면적보다 많은 수의 기업수요를 확보했다”며 “LH와 대구도시개발공사 및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서 예비타당성 조사, 인허가 승인 등의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산단 조성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했다.

공항건설단의 “TK신공항 건설 특별법 개정 등 추진상황” 보고 후, “현재 대구시는 TK신공항 건설을 위해 공동합의문 조항대로 잘 진행하고 있으며, 의성군에 물류터미널을 하나 더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대구시는 찬성한다”며 “국도부·경북도·의성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TK신공항이 제대로 건설되도록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하절기가 되어 늘여지기 쉽지만, 지금은 지난 2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롭게 시작할 시기이기 때문에 전 직원이 힘을 합쳐 분발하도록 하자”며 “행정부시장 소관 부서는 행정통합이 포함된 ‘시정혁신 100+’ 사업을 전체적으로 완성하는데 노력하고, 경제부시장 소관 부서는 ‘TK신공항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여은 기자



달성교육재단, ‘2024 초등·중등영어 여름방학캠프 발대식’

초등학교 6학년 30명
중학교 3학년 28명
교육비 재단서 부담
저소득층 항공료 지원



(재)달성교육재단은 지난 6일 ‘2024 초등영어 여름방학캠프’와 ‘2024 중등영어 여름방학캠프’ 오리엔테이션 및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선발된 학생 및 학부모, 관계자 등 170여 명이 참석했으며 프로그램 세부 일정 및 현지 생활방법 안내, 안전교육과 더불어 질의응답을 통해 여름방학캠프의 궁금

증을 해소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2024 초등영어 여름방학캠프에 선발된 관내 초등학교 6학년 30명은 오는 27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8월 24일까지 필리핀 바콜로드에 머물며 원어민과의 영어 학습, 봉사활동, 문화체험 등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필리핀 현지 초등학교 수업 참여가 계획되어 있어 학생 간 정서·문화적 교류를 기대해 볼 수 있다.

2024 중등영어 여름방학캠프는 관내 중학교 3학년 28명을 대상으로 오는 21일부터 8월 11일까지 미국 샌디에이고 일원에서 진행된다.

선발된 학생들은 CEA인증기관으로 인정받은 샌디에이고 CEL(College of English Language)에서 영어 수업을 받게 된다.

평일 오후 및 주말에는 미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할 예정이다.

체험학습 코스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이고 캠퍼스(UCSD) △하버크루즈 △

USS 미드웨이 박물관 △코로나도 해변 △디즈니랜드 △그리피스 천문대 등이 포함되며 미국 메이저리그 프로야구 경기도 관람할 예정이다.

또한 현지인 가족 홈스테이 생활을 통해 미국 의식주를 생생하게 접할 수 있어 서구 문화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해의 연수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을 절감한 것도 눈여겨볼 수 있다. 두 캠프 모두 항공료 및 개인 용돈을 제외한 모든 교육비를 달성교육재단에서 부담하며 저소득층에는 항공료도 지원한다.

최재훈 (재)달성교육 이사장은 “이번 캠프가 우리 학생들이 영어교육은 물론이고, 다양한 문화를 접하여 시야를 넓히고, 본인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달성교육재단은 앞으로도 수준 높은 교육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발걸음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조여은 기자

중구청, “대프리카 짬뽕날씨 북카페서 날려버려!”

큰글자 도서·만화책 코너 운영
스마트폰 급속 충전기 완비

중구청은 청사 1층을 주민휴식공간인 북카페로 운영하고 있다.

청사 1층은 지난 2018년 북카페 형태의 아늑한 공간으로 꾸몄다. 북카페에는 1천 6백여 권의 책을 구비하고 있고, 책꽂이 앞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책을 꺼내 읽을 수 있게 크고 작은 테이블이 배치돼 있다.

북카페는 구청을 개방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조용히 책을 읽던 기존의 도서관과 달리, 주민들이 만나 서로 교류하고 책을 읽는 소통의 공간이다. 또한, 무더운 여름철에는 시원하고 쾌적한 쉼터로서 어르신들이 더위를 피해 편

안하게 책을 읽으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큰글자 및 만화책’ 코너를 신설해 운영한다. 북카페 주요 이용계층인 어르신을 위한 큰글자 도서를 비롯해 영유아들도 함께 읽을 수 있는 만화책 2백여 권을 구비해 전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도서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급속 충전기를 설치해 방문자들에게 보다 편리한 독서 환경을 제공한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북카페는 책을 읽는 도서관 역할뿐만 아니라 동네에서 편하게 휴식할 수 있는 마을 사랑방 역할의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이 더 많이 찾아오는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복구청, 2025 대입 수시·정시 지원전략 2차 설명회 성료

복구청은 관내 학부모와 수험생 180여명을 대상으로 2025 대입 수시·정시 지원전략 2차 설명회를 지난 6일 복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지난 6월 15일 대구과학대학교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1차 설명회에 이어, 이번 2차 설명회는 6월 4일 실시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를 기반으로, 수시·정시 지원에 필요한 정보와 지원전략에 대해 중로학원 임성호 대표의 설명이 진행됐다.

특히 의대 지역인재 전형 확대에 따른 합격선 예측, 내신 점수대별 서울수도권 및 대구경북권 대입 전략 등 지역 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수

사정시 지원에서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성공하는 지원 전략 수립에 대해 필요한 방향을 제시했다.

배광식 복구청장은 “올해 의대 정원 확대 등으로 변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입시에서 지역 내 학부모와 학생들의 성공적인 지원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설명회 외에도, 복구진로지원센터에서는 진로와 진학으로 고민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학전문가와 함께하는 진학 컨설팅, 학생과 학부모 상담실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조미경 기자

군위군 청소년 문화의 집 에코캠페인 ‘견GO 줌GO~’

군위군청소년문화의집은 지난 5일, 청소년 문화의집 동아리회원 및 청소년문화의집 이용 청소년들과 함께 Eco캠페인 일환으로 ‘견Go

줌Go 환경살리고Go’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건강과 지구환경을 동시에 지키는 1식 2조 효과를 볼 수 있는 줌(줍다+조깅)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군위중고등학교를 출발하여 군위읍 일대를 걸으며 환경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박재성 기자

군위군-대구도개공 업무협약 체결



군위군은 지난 5일 대구도시개발공사와 ‘군위군 아이사랑키움터’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군위군 아이사랑키움터 조성사업’이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군위군은 군위읍 일원에 사업비 128억을 투입, 지상 6층의 규모의 대형 어린이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군위군 아이사랑키움터 조성사업’은 유치원이나 학교 등에서 이루어지는 정규 학습시간 외에도 아이들에게 교육과 돌봄, 놀이와 문화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편안한 공간에서 책을 접할 수 있는 책 놀이

터를 비롯,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키즈카페와 실내스포츠클럽터,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자연스럽게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디지털 교육실, 아이들의 사고력 향상과 학업 성취도를 높여 줄 체험공간 및 교육공간 등으로 채워나갈 예정이다.

군위군은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건축기획과 설계, 시공을 거쳐 2027년 시설을 준공할 계획이며, 그 기간 동안 아이사랑키움터를 채워 나갈 다양한 교육·문화·놀이 프로그램들을 연구·개발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 외에도 군위군은 교육과 돌봄에 큰 관심을 갖고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다.

군출연 공익법인인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를 통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과 및 독서교육프로그램과 다양한 진로체험학습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사교육에 불리한 지역적 약점을 극복하고자 지난 5월부터 추진 중인 ‘몰입영 어교실’은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외에도 각급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교육지원과 아울러 지역돌봄센터 운영지원을 통한 영유아 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이들의 다양한 예체능·취미활동을 권장하기 위한 합창단

및 오케스트라 운영 지원, 테니스부 지원 등을 통해 교과 과정 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여가와 자기개발 활동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군위군은 대구시교육청 및 대구시와 함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다양한 늘봄사업 추진의 토대가 마련되어 교육과 돌봄 사업을 더욱 확장해 나갈 계획이며, 군위초등학교의 IB프로그램 관상학교 지정, 군위중학교의 IB기초학교 지정 등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IB프로그램에도 큰 관심을 갖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저출산 시대에 육아와 교육에 대한 고민은 더 이상 개인 차원이 아닌 국가와 지방정부가 함께 해야 할 중대한 과제”라고 운을 떼며 “아이사랑키움터 조성사업은 이 같은 부모님들의 고민을 함께하고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한 군위군의 의지에서 비롯”되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아이사랑키움터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랬듯 앞으로 더욱 다양하고 내실있는 교육, 돌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부모님들의 걱정거리,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재성 기자

동구 신천4동 안전협의체 등굣길 교통안전 합동캠페인

동구 신천4동 안전협의체는 지난 5일, 대구효신초등학교에서 교통안전 합동캠페인을 실시

했다. 캠페인은 효신초등학교와 동대구지구대가 함께했다.

정순자신천4동장은 “우리 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의 등굣길 안전 확보를 위해 교통안전 캠페인을 함께 한 관계기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생활속 재난안전위험을 점검하고 사전에 대비해 안전한 신

천4동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신천4동 안전협의체는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지역자율방재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 70여 명으로 지난 4월 발대식을 가졌으며, 관내 회계취약지역 정비와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우범지역 정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미경 기자

강한 신문 대구광역시보

독자의 가슴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96년 7월 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6(일간)	누리집: www.dgy.co.kr	전자우편: dgynews@daum.net
발행인 김영숙 편집인 김성용 부사장 조여은 편집국장 김현석			
대구시 중구 태평로 286 (2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대표 053-267-9000	경영지원국 053-267-5000	광고국 053-267-0800	문체부 053-253-0065
부사정 053-254-0500	기획조정실 053-267-0900	시화부 053-253-0080	지정부 053-253-0064
편집국장 053-257-0200	인원실 053-267-0700	정경부 053-253-0061	편집부 053-253-0063
구독료: 월정 10,000원 / 부 5,0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마가 활궤고 간 자리 너무 참혹...어찌 살라고 통곡

160mm 육박 물폭탄 강타
재난 담당 부서 비상근무
상황관리전담반 운영...

경북 북부지역에 밤사이 160mm에 육박하는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홍수경보가 발령되고 주민이 폭우에 고립되는 등 비 피해가 속출했다.

밤사이 내린 집중 호우로 안동시와 영양군 일대는 그야말로 전정터를 연상케 한다.

8일 경북소방본부 및 안동시 등에 따르면 전날부터 새벽까지 안동시 와룡면 201mm, 명륜동 194mm, 풍천면 180mm 등 평균 110mm 가량의 집중 호우가 내렸다.

안동지역 곳곳에서 침수, 도로 유실 등 피해가 발생했다. 임동면과 남후면에서는 일부 주민이 고립됐다가 구조되기도 했다.

이날 새벽 3시 10분께 안동시 임동면 위리와 대곡리 일대에서 주민 19명이 고립됐다가 8명이 구조, 11명은 자진 대피했다.

남후면 2명, 와룡면 2명, 용상동 1명, 인근 영양군 임암면에서도 1명이 구조됐다.

광산천이 범람하면서 안동 풍천면 신성리와 구호리를 연결하는 면도 101호선이 침수됐다.

안동시 범흥동 지하차도와 낙강물길공원 입구 삼거리, 이천동 제비원 교차로 일대는 도로가 통제됐다.

임동면 중평삼거리 영양군 임암면 방향 도로도 파손돼 양방향 통제 중이다.

영양군 임암면 금학리 일대에는 범람한 물로 마을이 침수되고 전기와 수도가 중단됐다.

영양읍 현리, 갑천리, 전곡리, 서부리 등에서도 토사유출과 나무전도, 국도 낙석이 발생해 응급복구에 나섰다.

지방도 920호선 영양읍 전곡리 소계터널 부근과 군도 2호선 마령-산해(산해4리) 구간, 군도 11호선 금학저수지 일대도 통제됐다.

안동시 관계자는 "호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하천 범람이나 산사태 등의 피해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시민의 인적·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현재 상주·안동·영양·평지·영덕·예천·의성에 호우경보, 문경·울진·평지·청송·북동 산지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다.

주요지점 강수량은 상주 159.1mm, 영양 157.5mm, 안동 151.7

mm도, 의성 단북 127.5mm, 울진 온정 113.5mm, 예천 지보 97mm, 영양수비 72.5mm 등이다.

영양, 상주, 안동, 예천, 등지에 홍수, 산사태 경보도 내려진 가운데 이날만 100mm 가량 비가 더 내릴 예정이라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밤새 쏟아진 폭우로 안동 1명, 영주 39명, 상주 18명, 문경 25명, 예천 84명, 봉화 30명, 청송 5명 등 산사태 위험 지역에 사는 129세대 주민 197명이 마을회관 등지로 대피했다.

이날 오전 3시 30분께 안동시 임동면 위리와 대곡리 주민 19명이 폭우로 고립됐다가 11명이 자진 대피하고 나머지 8명은 소방 당국에 구조됐다.

오전 4시 20분 영양군·청암교 6.9m, 상주시·화계교 4.21m, 후천교 3.05m, 이안교 2.86m의 수위를 기록해 홍수경보가 발령됐다.

■이철우, 현장 대응태세 돌입

이철우 경북지사는 8일 아침 7시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며 "과도하게 철저하게 대응해 인명피해가 없도록 할 것"을 관련 부서에 지시하고 재해예방을 위한 신속한 대처를 주문했다.

이 지사는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경상북도 재난안전 대책본부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긴급 상황 점검 상태와 상황을 보고 받고 인명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비를 빈틈없이 하라며 재난 대비 철저히 지시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6,7일에는 특별지시사항을 통해 경북 마을순찰대를 적극 가동하고 위기 징후 시 즉시 마을 주민들을 통해 대피하도록 지시했으며 특히, 지난해 피해지역 마을 주민들의 대피에 여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도는 비상단계 발령과 함께 마을순찰대를 적극 가동했다. 산사태 예측정보에 따른 주민 대피조치를 진행, 산사태 위험 지역에서는 129세대 197명의 사전대피를 했다.

도는 앞으로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을 강화하고, SMS, 자동음성통보 등을 통한 홍보 활동도 지속해서 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도민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올여름 호우와 폭염과 같은 다양한 자연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종식 교육감, 학생 안전 최우선

경북교육청은 8일 오전 11시 교육안전과 주관으로 직속 기관과 교육지원청 과장, 담당자 등이 참여한 집중호우 대처 비상 대책 영상회의를 가졌다.

회의는 8일 새벽 집중된 호우와 관련,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사후 대처를 철저히 하기 위해 긴급히 소집됐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경북교육청의 인명피해는 없으나, 안동지역 고교 2교와 영양지역 초등 1교, 봉화지역 고교 1교에서 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영양지역 초등학교 2교 휴업, 의성 지역 중학교 1교와 영양 지역 초등학교 1교에서 단축 수업이 시행됐다.

회의에서 △재난 안전 상황 관리 강화 △사전예찰 점검 강화 △학생 안전 대책 △시설물의 피해 발생 시 상황 신속 전파 등이 논의됐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집중호우에 대비, 재난 담당 부서 비상근무와 상황관리전담반을 운영하며 재난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난에 사전 대비하되 신속한 대처 또한 중요하다"라며, "지난해 7월 집중호우 피해학교의 2차 피해 방지와 호우 위험지역 학교의 안전 점검 등 향후 이어지는 집중호우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안동시의회, 임시회 연기

안동시의회는 밤사이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일정을 감안해 당초 예정됐던 8일 제251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비 피해로 본회의 일정이 미뤄진 만큼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10일 오후 3시로 미뤄 처리할 계획이다.

김경도 안동시의회 의장은 "본회의 일정에 앞서 수해 복구 작업이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며 "시의원 전원 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영주댐, 초당 방류량 47.3t으로 늘려

영주댐이 8일 경북 북부지역 집중 호우에 따라 방류량을 늘렸다.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초당 17.3t인 영주댐 방류량을 오후 2시부터 초당 47.3t으로 확대했다.

영주댐 방류로 영향을 받는 내성천 인근 주민들에게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달라'는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김학동 예천군수, 현장점검

김학동 예천군수는 8일 오전 10시 호우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보면을 시작으로 인명피해 우려지역 및 농작물 시설 등 재난 취약지구 등 관내 일원 현장점검에 나섰다.

군은 지난 6일 재난안전재난본부 초기대응 단계에 돌입해

군수 주재 상황판단 회의를 개최하고 호우특보에 따른 비상 체계를 즉시 가동하는 등 호우피해 대처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 군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진두지휘하고 지보면 농경지 침수지역을 시작으로 풍양면을 거쳐 직접 읍면 현장을 둘러보며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군은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대비 중이며, 공무원과 마을주민으로 구성된 '마을순찰대'를 운영해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유사시에는 주민을 대피시킬 수 있도록 읍면과 실과소 직원으로 구성된 '마을 1전담 공무원'을 투입해 가동 중이다.

응급 복구 장비, 재해구호 물자 등 재난지원 확보와 지원 체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천, 배수 시설 등 공사장 작업 중지 및 사전 출입 통제 등 안전 조치와 함께 긴급재난 문자 발송, 마을 엠브 방송으로 주민들이 안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김학동 군수는 "며칠째 비가 이어져 지반이 약해져 있으니 주민들께서는 붕괴 위험 지역이나 침수지역 인근에는 절대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고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해주시길"을 거듭 당부했다.

■권기창 안동시장, '총력대응' 주문

안동시가 호우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총력대응에 나섰다.

안동시에 따르면 7월 7-8일 이틀간 와룡면에 201mm, 명륜동 194mm, 풍천면 180mm 등 평균 110mm 가량의 많은 비가 내렸다.

안동시 곳곳에 침수, 도로 유실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임동면과 남후면에서는 일부 주민이 고립됐다가 구조되기도 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현황을 보고받고 시청 직원들과 함께 새벽부터 임동면 현장을 나가 상황을 파악하고, 피해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관내 피해가 발생한 곳을 계속 돌아다니며 호우에 따른 피해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시는 각종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단체 카카오톡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비상근무 명령에 따라 관내 곳곳에 직원이 출동해 현장 사진과 함께 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재난에 대응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호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하천 범람이나 산사태 등의 피해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시민의 인적·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최고가 이야기하는
최고의 신문을 만들겠습니다

바라만 봐도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라만 봐도 탐나는 신문이 있습니다
감감한 세상 '새벽'을 여는 '첫' 신문

대구광역시보는 독자의 마음까지 생각합니다.

광고·구독문의
053-253-0000



보덕동 새마을부녀회, 북군동 일대 환경정비

경주시 보덕동 새마을부녀회 10여 명은 지난 5일 북군동 식당가 및 펜션마을 일대 환경정비를 했다. 부녀회원들은 여름휴가철을 맞아 지분해진 북군동 도로변 및 마을 구석구석에

버려진 생활쓰레기 등을 수거했다. 환경정비와 함께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성공, 지역주민들에게 친절, 청결, 신용, 안전 등 관광선진화 4대 실천과제를 홍보하며, 깨끗한

순남맞이 분위기를 확산시켰다. 이효성 부녀회장은 "연일 보덕동을 위해 힘써 주시는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환경정화활동을 통해 깨끗한 관광지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솔로 탈출'... 우리 이제 결혼 가정 꾸리고 싶어요

청춘 동아리 두근두근 설렘의 시작 프로젝트 미혼 남녀 60명 만남

미혼 남녀들의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 지자체까지 발 벗고 나섰다. 경주시는 미혼남녀 만남 행사 '청춘 동아리, 두근두근 설렘의 시작' 프로젝트를 열었다.

행사는 미혼 남녀들에게 만남의 기회를 제공해 참가자들에게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시는 지난달 17일부터 30일까지 경주에 주소지를 둔 20~39세 직장인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했다. 모집 기간 참가자들로부터 혼인관계증명서(상세)와 재직증명서 등도 별도로 받아 철저한 신원 확인 과정도 거쳤다.

행사는 지난 6일 경주 코모도호텔에서 열렸는데 한수원, 한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경주경찰서, 경주소방서, 경주교육지원청, 경주시청 등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미혼남녀 60명이 참가했다. 행사는 참가자들의 성격과 유형 등에 따라 서로에게 어울리는 상대를 매칭하는 방식으로 이어졌다. 전문 MC의 진행으로 레크리에이션, 연애 코

칭 등의 이벤트를 거쳐 남녀 간 자연스러운 매칭을 유도했다. 행사는 설렘 반 기대 반으로 3시간 가량 진행됐다. 행사에서 매칭된 남녀 참가자들은 다음달 9일까지 △도자기 공예 △떡케이크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으로 만남을 이어가게 된다. 시는 사는 곳과 직장이 같은 지역인데다, 참가자들의 신원까지 꼼꼼히 검증된 만큼, 많은 수

의 남녀가 연인관계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몇 쌍의 커플이 탄생했는지는 8월 10일 개최될 '애프터 파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행사가 지역 내 미혼 남녀들을 위한 자연스러운 만남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며 "이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 내 결혼 친화적 분위기 조성과 저출생 문제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주시, '2024 주민제안공모사업' 모집

황오동 도시재생 주민제안 공모사업 참여단체 모집...

경주시가 황오동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2024 주민제안공모사업'의 참여단체를 오는 15~22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에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발굴하고 활성화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선정된 단체는 환경 및 미관개선, 주민공동체 활성화, 황오동 원도심 마을자원조사, 지역상권 활성화 등의 사업 유형으로 진행된다. 공모사업은 오는 11월까지다.

사업의 종류에 따라 각단체별 일반공모는 최대 500만원, 기획공모는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컨설팅과 회계교육을 정기적으로 지원한다. 주민들의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11일 황오 작은도서관(원효로 142, 1층)에서 관심 있는 주민과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연다. 접수는 황오동 원도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현장접수(원효로 142, 1층) 또는 이메일(koalakj123@naver.com)을 통해 가능하다. 사업 및 접수의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황오동 원도심 도시재생현장센터(054-775-2598)로 문의하면 된다.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확대...경북 최고

도시가스 보조금 최대 300~400만원 경북도 시·군 중 최고 예산 10억 확보

경주시가 도시가스 공급을 늘리기 위해 보조금 확대에 나선다. 시는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경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시는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 시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의 80% 이하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던 보조금 규모를 최대 400만원으로 상향할 수 있게 됐다. 경북 시·군 중 최고 수준이다. 조례 개정으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위한 예산 4억원을 추가 확보, 전체 사업비를 10억원으로 높여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한다.

시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업비 28억원을 투입, 1984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했다. 시는 이번 조치로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토대로 도시가스 소외지역 주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 등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주시, 도시재생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일반·청소년부 나뉘 진행 최대 200만원 준비금 지급

경주시가 황오동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이끌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2024 창업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지역재생연구소에서 운영하며, 창의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경주시민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모집분야는 청년부와 일반부로 각각 나뉘진

행된다. 모집기간은 8월 5일 17시까지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총 13개 팀을 선정해 최대 200만원의 창업준비금을 지원한다. 사업화를 지원하는 팀에게는 심사를 통해 물품 및 기술 등 사업화 지원과 세무, 회계 등의 창업 교육 및 후속지원을 제공해 실질적 창업 성공을 뒷받침한다. 공모전 관련 유선 문의는 사전컨설팅 운영기간인 오는 22~28일까지 가능하다. 23일과 25일 양일간은 황오동 원도심 도시재생현장센터(경주시 원효로 142, 1층)에서 안

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황오동 원도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블로그 또는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경주시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주도하는 지역경제의 구심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아이디어만 있어도 실제 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핵심적, 실천적 지원 콘텐츠를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토함산자연휴양림' 물놀이장 개장



청량함 가득한 숲속 쉼터 안전·쾌적 이용 정비 完...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 토함산자연휴양림 물놀이장을 오는 15일 개장, 새달 24일까지 운영한다. 토함산자연휴양림 물놀이장은 길이 0.5m~1.2m의 미취학아동 및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로 안전을 위해 성인 보호자 1인에 한해 동반 이용할 수 있다. 이용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정비시간 포함)이다. 사업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객실 숙박객과 야영 데크 이용객에 한해 입실일 오후부터 퇴실일 오전까지 무료다. 물놀이장 개장을 앞두고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모두 마쳤다. 운영기간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수시로 시

설 점검으로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토함산 울창한 숲속에 위치한 토함산자연휴양림 물놀이장은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즐길 수 있어 전국적으로 인기가 높다. 물놀이장은 객실 또는 야영 데크 예약 및 결제 후 이용 가능하다. 새달 29~9월 30일까지 반려동물 동반 1객실(23㎡)을 시범운영한다. 예약 시 반려동물 등록 확인 및 광견병 예방접종 완료 등의 반려동물 입장 주의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예약·결제는 쉼터들e(https://www.foresstrip.go.kr)나 토함산자연휴양림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을 참조하고, 토함산자연휴양림(054-750-87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용찬 기자/사진=경주시 제공

경주시, '총괄건축가'에 최무현 교수 위촉

건축·도시 디자인 경쟁 강화 수준 높은 도시공간 조성...

경주시는 '제3대 경주시 총괄건축가'로 최무현 신진주대 전통건축학과 교수를 위촉했다. 최 교수는 초대 이대준 한동대 교수와 제2대 현택수 경일대 명예교수에 이어 앞으로 2년간 총괄건축가 직을 수행하게 된다. 시는 2019년부터 총괄건축가 제도를 도입했다. 제2대 총괄건축가 임기 종료와 함께 새로운 총괄건축가를 모시기 위해 여론을 수렴해 왔다. 최 교수는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경상북도 건축위원회위원, 경북문화관광공사 설계심의위원, 경주시 건축심의위원·고도육성지역심

의위원 등을 맡고 있거나 역임한 바 있다. 지역대학 전문가들의 모인 '경주고도육성포럼'과 '경주학포럼'등 단체에서 회장 또는 임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최 교수는 총괄건축가로서 경주시 공간정책 및 전략 수립에 대한 자문, 주요 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등 건축·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로 수준 높은 도시공간을 조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최무현 총괄건축가는 "공공건축은 일반 시민 모두가 향유하는 공간환경이므로 최고 가치수준을 지향하겠다"고 위촉 포부를 밝혔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는 타 도시와 다른 역사와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공건축이 경주에 맞는 품격 높은 건축디자인 도시로 선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복지사각지대 없는 불국동 만들어요~

경주시 불국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5일 불국동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제3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정기회에서 정연환 위원을 민간위원장으로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사업으로 기획된 복지사각지대 해소 위한 맞춤형 현금지원 대상 10가구를 발굴 및 선정한다. 든든꾸러미사업의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논의해 함께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모두 뜻을 모아 꾸준한 봉사활동을 한다. 정연환 민간위원장은 "위원들과 힘을 모아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힘쓰고 협의체 활성화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산 김천 문경 상주 칠곡 예천



경산시립도서관 강사 초빙

경산시립도서관은 지난 6일 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정지아 작가를 초빙해 진행한 작가와의 만남 특별강연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김유정문학상, 심훈문학대상, 이효석문학상 등을 수상하며 문학성을 두루 입증받은 정지아 작가의 아버지의 해방일지는 2022년 올해의 책으로 선정, 2022년과 2023년 상당 기간 베스트셀러 1위에 등극했다.



사랑나눔 삼계탕 봉사

바르게살기운동상주시협의회 청년회는 지난 5일 공성면 옥산초등학교 강당에서 지역 어르신 300여 분을 모시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사랑나눔 삼계탕 봉사 행사를 가졌다. 민병규 상주시협의회장은 "이른 무더위로 지친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 따뜻한 삼계탕 한그릇으로 건강한 여름을 보내셨으면 좋겠다. 이웃과 따뜻하고 훈훈한 정을 나누기 위해 나눔행사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부항면, 도로 환경 정비 구슬땀

부항면 자율방범대원들이 지난 5일 주민과 탐방객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 관내 주요 도로의 풀베기 작업을 했다. 문우동 자율방범대장은 "이번 풀베기 작업이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 부항면 자율방범대는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달달한 수박 드시고 당 충전하세요!

안근산 경산시 서부2동장은 김수열 명예동장과 함께 초복을 맞아 5일 서부2동 경로당 21개소를 방문해 수박과 간식을 전달하고 무더위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를 살폈다. 조미경 기자

김천시, 2024 탄탄한 중소기업 지원 시책 추진

임금·고물가·고환율 겪는 중소기업 든든한 버팀목

김천시 투자유치과는 '2024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고임금·고물가·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주요 사업은 △중소기업 육성 기반 구축 사업 △중소기업 기술 성장 디딤돌 △기술 주치의 119 지원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해외시장 개척기업 지원 △기업 ESG 경영지원 구축 △경북 행복기업

산업안전 환경개선 등이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운용'은 장기간 침체한 지역 경제와 최근 고금리 사태로 악재로 자금난의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에 524억 원 용자 규모로, 1년간 대출이자 4%를 지원, 기업 경영 안정화에 보탬이 되고 있다. '중소기업 기술사 입차비 지원사업'은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 및 생활 안정을 제공, 기업이 입차한 기술사 월세의 80%, 1실당 최대 30만 원/월까지 지원한다. 기업에는 안정적인 노동력을 확보하고 근로자에게는 삶의 질과 생활 만족도를 높여 기업의 만성적 인력난 해소 및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

고 있다. 시는 2024 지원사업의 효율성과 전문화를 높이기 위해 경북경제진흥원, 경북테크노파크, 경북경제자총협회 등의 공기관 및 민간 위탁 기관과 함께 각종 사업을 협업 추진 중이다.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연중 사업 추진 및 완료 후 사업 결과물 등의 증빙서류를 갖추어 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다. 위탁기관은 철저한 검토를 바탕으로 지원금을 집행한 후 김천시에 정산 보고를 하는 절차를 따르고 있다. 김천시와 위탁기관은 사업 종료 후 설문조사로 추진 과정 상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을 차기 연도 사업에 반영하는 등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업발굴에도 힘쓴다. 올해 각종 지원사업 추진 시 최근 3년 이내 동일 사업 참여 기업에 신청 자격 제한 규정을 두어 보다 다양한 기업이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신청 가능 기업이 지원사업을 전혀 몰라서 지원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 홍보에 매진하고 있다. 하광현 투자유치과장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경기 상황을 주시, 지역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업지원 시책 추진 및 신규 사업을 발굴, 관내 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지역 내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백합 향기 만발하는 상주시내 저녁 산책

지과는 장마철 시민들의 불쾌지수 해소와 쾌적한 가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백합구근 7000여 개를 미리 식재, 준비했다. 산림복지과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백합을 흰색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백합화단을 처음 선보이는 만큼 다양한 꽃 화색을 갖춘 아시아티 계통의 품종을 선택했다"라고 말했다. (사진=상주시 제공)

농업 먹거리 지역순환사회 시민과 꿈꾼다

24 상주시농촌신활력플러스 더 가깝게, 더 맛있게 포럼개

상주시가 '2024 제1차 지역먹거리 활성화 시민포럼·심포지엄' 더 가깝게, 더 맛있게 개최했다. 행사는 지난 5일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이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에서 열렸다. 1부 심포지엄에서 공공급식, 다중위기시대의 지역순환농업의 가치, 먹거리로 드러나는 삶의 질, 타지역의 먹거리정책 사례 전문가 발표가 있었다. 참가자들과 함께 지역먹거리 발전 방향에 대해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2부 시민포럼에서 김영희 추진단장의 주제로 각

계 각층의 다양한 패널들이 참석, 지역먹거리 정책, 지역먹거리 활성화, 미래농업, 공공급식 등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현황과 과제, 나아갈 길 등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고 문제점 해결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 심포지엄과 시민포럼을 마친 후 지역농산물을 주제로 만든 다양한 음식을 함께 맛보는 시간을 마지막으로 행사는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상주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지역먹거리의 생산·유통·소비 등을 하나의 선순환 체계로 묶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지역민들에게 공급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이다. 추진단은 이 사업이 종료(2024년 말)된 후에도

지속적인 지역먹거리 활성화를 위해 농민과 소비자, 농장과 식탁, 생산과 소비, 사람들의 마음을 서로 이어주는 구심점인 역할을 할 먹거리연대 사회적협동조합 '상주이음(가칭)'을 설립, 지역먹거리 산업을 이끌어갈 계획을 구상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우리시의 우수한 농업환경에서 많은 분들이 최고의 농사를 짓고 있고, 더 많은 상주시민들에게 먹거리의 감사함과 지역순환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런 행사를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건강한 먹거리, 우리 이웃의 농장에서 식탁으로 바로 오는 로컬푸드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으로 상주농업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경호 기자

칠곡군, 일상서 누리는 특별함 버스킹 공연

지역 주민 모두 즐기는 문화예술 발전 최선...

칠곡문화관광재단은 지난 6일 토요일 칠곡평화분수에서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음악을 향유할 수 있는 칠곡버스킹 공연을 했다. 버스킹은 군이 문화도시 사업으로 주민에게는 다양한 문화 공연을 쉽게 접할 수 있게 한다. 지역예술인에게는 관객과 소통하며 공연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거리공연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마감결과 65팀이 신청,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30팀을 선발했다. 주말 유동인구가 많은 곳인 칠곡평화분수와 칠곡보생대공원에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3팀의



버스커가 노래, 국악, 악기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으로 '뽕'과 '끼'를 뽐낸다. 다른 중대형 행사가 있는 경우나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인만큼 날씨로 공연이 어려울 경우 예정된 버스킹 공연은 취소될 수 있다. 취소 시에는 하루전에 칠곡문화관광재단 누리

집에 공지한다. 첫 공연을 함께한 김재욱 재단 이사장은 "이번 버스커들의 공연에 잠시 발길을 멈추고 일상에서 특별한 즐거움을 누리길 바란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공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예천시니어클럽, 카페 윤슬' 개소

예천군은 8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2024 신규 시장형 사업단 '카페 윤슬'을 개소한다. '카페 윤슬'은 예천시니어클럽에서 노인에게 적합한 소규모 업종을 운영해 일자리와 추가 사업 수익을 창출해 내는 시장형 사업단으로 소풍(음식점), 나비세상, 단샘 농부네, 실버 유통에 이어 5번째다.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 참여자 12명이 3교대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한다. 판매 차림표는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바닐라라떼, 연유라떼 등 커피류와 에이드, 스무디 등이 있으며 특히 고급 원두의 아메리카노를 2000원에 판매한다. 다이어트 도시락, 핫도그, 케이크 등 간단한 한끼 식사로 가능한 차림표도 있다. 행사나 모임에 적합한 디저트·음료 세트도 구성돼 있다. 8000원 이상 주문 고객에게는 무료 배달한다. 박태환 국장은 "2021년 예천시니어클럽이 개소되고 공익형 일자리 사업에서 어르신들의 사회적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시장형 사업을 매년 확대 운영하고 있다. 5번째 시장형 사업단 '카페 윤슬'의 개소를 축하드리며,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이 많이 생기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카페 윤슬은 예천군청 뒤편(예천읍 무리실 1길 18, 103호)에 있다. 단체 주문 및 문의 사항은 054-654-6098, 054-655-6099로 하면 된다. 송영주 기자

영덕 영양
청송 청도
울릉 울진



영덕군, 신태용 감독
축구공원 개장

영덕군은 지역을 대표적 축구 스타이자 최근 인도네시아 축구 국가대표팀의 감독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신태용 감독의 이름을 딴 축구공원을 개장한다. 영덕읍 청포리에 자리잡은 신태용 축구공원은 3면의 축구장에 영덕의 청정한 바다와 풍력발전소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조망을 갖춰 축구 명소가자 지역의 주요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태용 감독은 "저의 축구 철학과 축구 발전에 힘써온 노력들이 스며들 수 있도록 개장 이후 추가적인 시설과 인프라들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울진愛 고백'...
고향사랑기부제



울진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10월31일까지 울진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울진愛 고백(Go Back)' 과 연계한 고향사랑기부제 행사를 한다. '울진愛 고백(Go Back)'은 사전에 관광 안내 책자를 신청한 관광객이 울진을 관광한 후 설문지와 지역에서 쓴 영수증을 제출하면 금액 구간별로 10% 상당의 특산품을 보내준다. 행사 신청자 중에서 고향사랑기부제에 10만원이상 기부하고 전화 또는 네이버 폼에 인증 등록한 500명(선착순)에게 커피 기프트콘을 지급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에도 많은 참여와 관심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철우, 울릉 천연자원 미래 고부가가치 창출

해양심층수 및 우산고로쇠 활용 천연자원 바이오기술 플랫폼 개발

이철우 경북지사가 6,7일 이틀간 울릉도를 찾았다. 울릉도 해양심층수와 우산고로쇠 등 천연자원의 부가가치 창출로 울릉 미래 신산업 발굴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지난 6일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에서 남한권 울릉군수, 남진북 경북도의원, 최도성 한동대총장, 조남준 난양공대변환경경제연구소장 등 전문가들과 함께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천연자원의 고부가가치화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해양심층수는 수심 200m 아래 흐르는 청정 수자원으로 천연미네랄 등이 함유돼 있다. 먹는물 뿐만 아니라, 기능성 식품과 화장품, 관광, 치유 분야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중요 자원이다. 간담회를 마친 후 울릉심층수 제조공장을 방문해 산업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생산시설을 함께 둘러보았다. 7일은 경북 대표 임산물인 우산고로쇠 생산 농가를 방문했다. 우산고로쇠 영농조합회장의 수액 채취 및 기술 개발 현황 설명을 듣고, 관계자들과 고로쇠 고부가가치 상품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산고로쇠 수액에는 칼슘 등 천연 미네랄이 풍부, 인삼에 들어있는 사포닌이 포함되어 골다공증 개선, 항염증 활성에 효능이 있다. 도는 울릉도의 해양 및 천연자원 등을 활용해 다양한 신산업을 발굴한다. 한동대와 난양공대 변환경경제연구소 등과 함께 울릉도에 공동 연구개발 센터를 설립한다. 해양심층수 천연미네랄과 자연 성분 및 울릉 고로쇠 수액으로 메이플 시럽과 약용성분을 추출하는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한다. 울릉도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간직해 발전 가능성이 큰 지역이다.]

외국인 근로자 영양 일손 돕고 고국으로

영양에 일손을 도우려는 계절근로자가 자신의 고국으로 모두 돌아갔다. 지난 4월 8일 베트남 화방군에서 MOU 2차로 입국한 계절근로자들이다. 이들은 90일간 농작업을 마치고 지난 5일 인천 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출국한 MOU 2차 계절근로자는 4월 영양군의 주작물인 고추 파종기에 맞춰 C-4-1 비자로 들어온 40명의 계절근로자로 파종-경작 등의 농작업에 종사, 일손 부족 문제 해결과 인건비 상승 억제에 큰 도움이 됐다. 출국한 계절근로자 중에는 성실한 근로자로 인정받아 농가의 재입국 추천으로 오는 8월 초 추진하는 MOU 4차 계절근로자 사업(284명 예정)에 다시 참여한다. 권윤동 기자



지난 6,7일 이틀간 울릉도를 방문한 이철우 경북지사 등 일행이 울릉심층수 제조공장을 방문해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그동안 생업 기반인 어업 환경이 열악, 높아진 생활물가 등으로 의료와 문화 혜택조차 받기 어려웠다. 1974년 3만 명에 이르던 인구가 지금은 9000명 정도로 전국 226개 시군구 중 유일하게 인구가 1만 명이 안 된다. 경북도는 울릉도의 보호와 발전을 통한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환경의 실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지난 3월 한동대, 난양공대 변환경경제연구소, Hydra Energy, Regenerate Technology, 만두카 등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 울릉 글로벌그린아일랜드

프로젝트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울릉 3대 변화 기반으로 △울릉도 특별법 시행 △교육발전특구 지정 △규제프리존 실현을 제시했다. 5대 전략은 △하늘과 바다를 연결하는 허브섬 △하이테크페이스업 △클린업 △세계적 자연 관광 △글로벌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유시티 울릉 등 정책을 추진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먼저 내다보고, 경북의 미래를 먼저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경북은 산림면적 129만ha로 전국의 20%를 차지하는 풍부한 산림자원과 청정 동해의 해양자원 등 우수한 천연자원을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창출해 도민이 잘사는 지방시대를 열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경북도 유일의 섬인 울릉도에서 생산되는 청정 자연자원을 상품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기쁘다. 연구 결과물이 울릉군의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이어져 군민의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정윤환 기자

김광열 영덕군수, 내년도 국비확보 총결집

2025 국비확보 추진상황 2차 보고회 총괄적 검토

김광열 영덕군수가 내년도 국비확보에 행정력을 총동원한다. 군은 8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담당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국비 확보 추진 상황 2차 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에 지난 3월 진행된 '2025 국·도비 건의 사업 보고회'에서 거론된 주요 국비 사업에 대한 진행사항을 총괄적으로 검토했다. 주요 사업은 △동해안 내셔널 트레일 조성(190억 원) △국가민속고시마을 정비사업(357억 원)

△명승 「영덕 옥계 침수정 일원」 정비사업(111억 원)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150억 원) △금진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354억 원) △영해취수장 지하수 저류댐 설치사업(200억 원) △영덕군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분류식화 사업(270억 원) △영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사업(172억 원) 등이다. 군은 정부예산 일정상 기획재정부가 정부 부처 예산을 심사하고 예산안을 국회로 제출해야 하는 9월까지 국비 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모은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정부 건전재정 기조로 인해 중앙부처의 신규사업이나 계속사업의 편성이 축소되어 예산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군 현안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



2025년 국비 확보 추진 상황 2차 보고회 모습. 도록 각 부서에서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조여은 기자

올 여름, 특별한 즐거움
일상탈출 울릉도 여행
Have a Special Time in Ulleung Island

영천 영주
봉화 의성
고령 성주



영주시 하망동, 아이들과
함께 환경사랑 실천

영주시 하망동 소재 리아어린이 집은 8일 원아들과 함께 모은 폐건 전지와 종이팩을 하망동행정복지 센터에 전달하여 폐건전지·종이 팩 교환사업에 동참했다.

이날 리아어린이집 원아들은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일환으로 다 쓴 건전지와 깨끗하게 세척하고 말린 종이팩을 새건전지와 화장지로 교환하는 체험학습을 통해 환경사랑을 실천했다.

박미선 하망동장은 "어린이들이 재활용품을 모아 환경보호에 앞장 서줘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자원의 선순환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영주시는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시민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폐건전지·종이팩 교환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폐건전지는 0.5kg당 새 건전지 1세트, 종이팩은 0.5kg당 화장지 1롤로 교환할 수 있다. 전성기 기자



봉화정자문화생활관,
'누정 휴(休) 공간 만들기' 인기

봉화정자문화생활관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누정 휴(休) 공간 만들기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누정 휴(休) 공간만들기는 정자문화생활관을 찾는 방문객들이 머물며 즐길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전시회 개최, 스탬프 투어, 원데이 클래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전시회는 누구나 편하게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는 공간인 누정갤러리에서 매월 개최되고 있으며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활동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누정 사랑 공,공스텝' 투어는 정자문화생활관 내 설치된 스탬프를 모으면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가족 단위의 방문객에게 인기몰이 중이다.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되는 원데이 클래스는 전달 20일 사전접수를 진행하는데 조기 접수가 마감될 정도로 호응이 좋다.

정자문화생활관을 찾은 한 방문객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아 저서 체험하기 좋았다"며 "다음엔 숙박시설인 솔향촌에 와서 산책도 하고 하루를 보내고 싶다"라고 말했다.

권용규 체육시설사업소장은 "앞으로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봉화정자문화생활관에 방문할지 고민하고 연구해 체류형 관광지의 대표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전성기 기자

봉화군, 잇따른 ASF 발생으로 확산 차단 총력대응

발생농장 역학 농장 2곳 이동제한
정밀검사, 기본방역수칙 준수 홍보

봉화군이 아프리카열병 예방에 비상이 걸렸다. 군은 도내에서 지난달 15일 영천에 이어 지난 2일과 6일 안동과 예천에서 잇달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진됨에 따라 관내 양돈농장으로 확산차단을 위해 총력대응하고 있다.

군은 긴급 조치사항으로 발생농장 역학관련 2곳의 농장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주 1회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양돈농장에서는 출입자 통제와 출입차량 2단계 소독 및 농장 매일 소독하고, 축협공방단 및 군 방역차량 4대를 동원해 취약농장 및 인접도로에 집중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군에서는 24개 농장에 전담관을 지정해 전화예찰을 실시하고, ASF 발생정보,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방역수칙을 단체 채팅방을 활용해 농장과 실시간 공유하며 보유 중인 생석회 10톤, 소독약품 100리터, 발판소독주 150개를 배부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최근 발생농장은 인근에서 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다수 발견됐고 관내에서도 2022년 12월 석포면을 시작으로



로 금년 5월 중앙면까지 10개 전 읍면의 야생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90건 검출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양돈농장에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기

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ASF 확진은 올해 6번째이자 경북에서 네 번째 발생이다. 금년도 ASF는 △1월16일 경

북 영덕 △1월18일 경주 파주 △5월21일 강원 철원 △6월15일 경북 영천 △7월2일 경북 안동에서 확진된 바 있다. 전성기 기자

영천시,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2차 참여업체 모집

인건비 1인당 중소기업 월 70만원,
소상공인 월 50만원 최대 지원

영천시는 5일부터 지역 내 중장년 유인력에 대한 취업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구인난 해소를 위해 '2024년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2차 참여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관내 40~64세 신중년 근로자를 신규 채용(2024. 1. 1.이후)하는 영천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으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제도로, 중소기업은 1인당 최대 월 70만원(급여의 40% 이상 사업체 부담

필수), 소상공인은 1인당 최대 월 50만원(급여의 30% 이상 사업체 부담 필수)을 연말까지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중소기업 10명, 소상공인 5명으로 총 15명이며 중소기업은 사업장별 최대 3인, 소상공인은 최대 2인까지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우 정규직 고용형태(주 40시간 이상 근무)로 월 기본급 2,060,740원 이상 지급해야 하며, 소상공인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무형태로 최저 임금(9,860원/시간) 이상 지급해야 한다.

신청은 지난 5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시정 일자리노사과로 방

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요건,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조하거나 전화(☎ 054-330-667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 3월 1차 모집을 통해 관내 9개 기업, 15명의 근로자를 선발했고 올해는 소상공인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해 영세사업장의 고용환경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신중년의 지역노동시장 진입을 장려해 취업을 돕고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역 사업장에 고용 지원으로 구인난 해소 및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은하 기자

영주시, 관내 제조업체에 '올해 물류비' 지원

영주시는 관내 제조업체들의 물류비 부담 완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이하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영주시에 공장등록을 하고 신청일 현재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4년도에 사용한 물류비를 기업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년도 수혜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어 지속적인 물류비 지원을 통한 관내 제조업체들의 경영여건 개선 및 성장동력 마련이 기대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기간(2024.1.1.~2024.11.30.) 내 사용한 물류비(△국내 운송비 △창고 보관료 △창고 작업비 △물류 포장비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경북도경제진흥원 북부지소(☎054-900-3838)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지난 5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한다.

김명자 영주시 기업지원실장은 "이번 물류비 지원사업이 관내 제조업체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에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도에 사용한 물류비 지원은 '2024년 경북도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사업'을 통해 오는 16일까지 신청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 누리집 공지사항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성기 기자

의성군 청년센터 개소식 및 문화행사 개최

성주군 가천면은 본격적인 휴가(행락)철을 맞아 지난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성수기 행락지 관리에 들어갔다.

매년 5만여명 정도로 내방하고 있어 이미 기초 질서 지도, 간이화장실 청소, 연도번 쓰레기 투기수거 인력을 확보해 운영중이다.

20여명 정도로 현장을 관리하는 인력이 상주하며 지난 6월 관련 교육을 실시했고 119의 협조를 받아 심폐소생술 등 응급 상황에 대비하는 훈련도 실시하고 현장에 투입했다.

가천교를 시작으로 포천계곡 일원 10여 km 구간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게 되며 취사 및 야영행위,

불법 내수면 어업, 하천변 평상 등 무단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지도 및 단속이 실시되며 공무원도 휴일없이 현장관리로 들어간다.

편의시설로는 취사장 2곳과 수세식 화장실, 탈의실의 갖추었다. 취사장은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잡초 제거와 빗가림 포장, 수세식 화장실과 탈의실은 냉방기를 설치하고 운영 중이고 탈의실은 올해 처음 설치된 편의시설이다.

이호원 가천면장은 "내방객들에게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겠지만 덥고 습한 날씨에 지역에서 시원하고 쾌적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노력하겠다"며 특히, 행락객의 안전을 위해



공무원과 기간제근로자에게 수시교육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행락객의 주의와 관심 부탁드리며 즐거운 휴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재훈 기자

어서와, 성주는 처음이지? 로컬매니저가 본격 활동한다

성주군은 지난 5일 창의문화센터 평생교육실에서 듀얼라이프 성주살아보기 프로그램인 '2024 어서와 성주는 처음이지' 로컬매니저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 활동에 나선다.

로컬매니저 발대식은 성주에 살고있는 지역주민이 성주에 살고있는 지인을 초청해 성주의 매력을 알리는 여행서포터즈다.

이날 행사에는 모집공고를 통해 선발된 36명의 로컬매니저를 비롯한 이병환 군수, 도희재 군의장, 관광두레협의회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해 로컬매니저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어서와 성주는 처음이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성주에서 살고 싶은 누구에게나 우리 지역에서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로컬매니저들이 직접 기획한 다양한 주제의 체류형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생활인구를 유치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지역소멸 위기가 시대적 화두로 자리 잡은 가운데 정부에서는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연구지표를 통해 지방소멸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성주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있는 프로그램 기획으로 성주의 매력을 알리고 나아가 그들이 성주에 정착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했다. 도재훈 기자

고령군, 스마트폰 건강관리사업 본격 시작



고령군은 '2024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오늘 건강' 앱과 스마트 기기를 통해 비대면으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공공형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이다.

현재까지 160명의 어르신이 등록을 완료하여 목표 등록인원 150명을 상회했다. 등록된 어르신들은 지금부터 6개월 동안 건강관리사업에 참여

하게 된다. 매달 주어지는 '제때 약먹기', '혈압 측정하기' 등의 건강미션을 수행하며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

또한 전문인력들의 맞춤형 컨설팅이 어플을 통해 제공되므로, 시간과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기존 대면 중심의 보건사업과 큰 차이를 나타낸다.

내년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어르신들을 현재 모집하고 있으니 보건소 방문보건팀으로 연락을 하면 사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간단한 교육도 제공되므로, 스마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다.

김근수 보건소장은 "건강관리에 관심과 의지를 가진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배영백 기자

창간 28주년

※ 접수기간 : 선착순(입금자순)마감

2024 대구광역시일보 영덕 사랑나눔 gOLF 큰잔치



7월 24일 수요일 | 참가자 전원
영덕오션비치 골프&리조트 | 기념품 증정
행운상 푸짐

2부 시상식 및 유명 연예인 공연
□ 행사장소 : 오션비치 2층 대식당

참가규모 총40팀(160명)

접수기간 ~**선착순마감**(입금자순)

2024년 7월 24일 오전 11시 13분 ~ 순차티오프

참가신청

- 참가자격 : 전국 남·여 아마추어골퍼
- 당일 참가비 : 23만원(그린피18h, 카트1회, 저녁만찬, 참가 시상품등)
- 1박2일 참가비 : 45만원(그린피36h, 카트2회, 저녁만찬, 숙박, 조식, 참가 시상품등)
- 참가비 입금계좌 : 대구은행 508-11-147821-4
예금주 : 김영숙
- 선입금 : 선착순마감(신청확정 후 취소시 환불불가)※본인이 양도는 가능
- 참가문의 : 대구광역시일보 사업국 1600-5458
담당 010-4473-4473

시상내역

- 매달리스트(통합) : 아이언세트
- 신페리오 우승(통합) : 풀세트
- 신페리오 준우승(통합) : 아이언세트
- 신페리오 3위(통합) : 드라이버
- 니어리스트(남·여) : 퍼터
- 롱 기스트(남·여) : 드라이버
- 이글상, 최다 버티, 파, 보기, 더블파등
기타 상품지급!

<대회 참가 연예인>



사회 김용일



가수 유순실



가수 백봉기



가수 양혜승

※출연 연예인은 사정상 변경 될 수 있음.